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교회교육 프로그램 설계 방안

김보경 전주대 교수
김호성 대전산성교회 목사
김도현 대전산성교회 전도사

I. 서론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공유 플랫폼의 성장으로 설교, 간증, 메시지가 넘치는 시대가 되었다. 말의 홍수는 액체 사회를 더 가속화시켜 사람들로 하여금 어느 한 가지에 전념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흘러 다니도록 한다(Davis, 2022). 그러나 영성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 일상에서 훈련되어야 하며, 들은 말씀이 일상의 행위로 번역될 때 함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교육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말씀과 기도만을 강조한 나머지 성도가 개인의 구원과 내면세계로만 지향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 이후 성도들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반복적 일상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일상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지에 관한 일상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목회데이터연구소(2020. 4. 10)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 24.3%가 ‘교회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신앙 실천으로의 의식 전환’에 응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천 년 전의 성경 속 역사적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개인의 일상에 주는 의미를 스스로 해석해 내는 연역적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일상의 다양한 맥락(context)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 말씀(text)으로 다시 재해석 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교회 교육은 학교나 사회에 제공되는 여타 교육과 달라야 한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죄와 타락의 관점에서 찾아내고 성경에 근거한 해결안을 실행해 나가는 실천적이고 활동적 영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운영되는 다수의 교육들이 대체로 참여 성도의 수동적인 듣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주제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하거나, 사역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메시지와 간증 사례들을 듣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이들이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드러지는 공적 예배의 특성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김난예, 2015; 김보경, 2019). 그러나 교육의 목표가 성도의 삶에서 인식의 변화와 실천의 지속일 때 이러한 강의나 강연 중심의 교육방법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도의 일상의 삶을 다루고 영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계 방안을 제시하여 교회 교육 실행가들에게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영성 형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교회 교육이 일반 교육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셋째,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일상 영성 형성의 특징

일상이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말한다. 대체로 의식주와 관련한 인간 생존을 위한 단순한 일들이 일상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단순하고 단편적인 일들이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일상들이 반복하면서 연결되어 개인의 존재 양식과 행동 양식이 만들어지게 된다. 먹고, 잠자고, 대화하는 일들이 의식적 노력이 적게 드는 단순하고 쉬운 일들이지만 이런 일상적 행위들이 누적되면서 개인이 누군가와 구별 지어지는 정체성을 만들게 된다.

영성이란 Nye와 Hay(1996)에 의하면 ‘도덕적 민감성’과 ‘신과의 신비적 일치’사이의 스펙트럼 중 어느 한 곳에 놓을 수 있다고 하였다(김정신, 2002: 55에서 재인용). 교육에서 양 극단의 영성을 다루어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 중간 어느 즈음에서 일상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포착하여 일상 영성 형성을 도울 수는 있다 그러므로 일상 영성 형성이란 반복된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존재 양식을 그냥 내버려두기 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하게, 절대자의 가르침을 반영하여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영성을 종교 안에서 신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여겨져 왔기에 영성 탐구가 신적 관점에서 교리를 세우고, 교리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을 탐구하는 연역적 접근을 주로 해왔다. 그로 인해 영성의 일상성과 역동성에 무관심하여 왔는데, 이제 인간의 삶에서 일상 영성을 탐구하는 귀납적 탐구방법도 필요한 시점이다(유해룡, 2011: 20-22).

기독교의 일상 영성이란 마틴 루터의 ‘만인제사장(das allgemeine Priesterum)’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경건주의 운동, 대각성 운동을 거쳐 현재 20세기 평신도 운동까지 일상 영성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일상 영성 형성에 대해서는 폴 스티븐스(Paul Stevens)의 생활 영성 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현대인을 위한 생활 영성」에서 진정한 신학은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조화를 이루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하며 평신도의 삶 전체는 이 실천의 장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생활 영성의 영역을 노동의 영성, 가정생활의 영성,

이성 관계의 영성, 형제 관계의 영성, 홀로 있음의 영성, 이웃 관계의 영성, 안식일의 영성의 일곱 가지로 구분하고 평신도가 각 영역의 참된 의미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가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Stevens, 1996).

한국 교회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매일의 삶에서의 영성을 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새벽기도, QT, 말씀 암송, 영성 일기, 미디어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 등이 그것이다(오솔기, 2021).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노력의 대부분은 교회 밖의 삶에서도 성경 말씀을 자주 접하고 자주 기도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으로 보인다. 여전히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내러티브를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해 내는 것은 교회가 돕지 못하고 성도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일상 영성은 형성은 일상과 영성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지속적, 규범적/실천적, 개별적/공동체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일상 영성 형성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 우리의 일상 중 상당 부분은 반복적이다.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출근하여 일을 하고, 퇴근 하고 휴식한 후, 다시 잠에 든다. 이러한 반복적인 루틴이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성인이 8시간 수면을 하고, 세 끼 식사에 2시간을 사용한다면, 잠과 식사에만 인생의 약 40%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일상의 반복성은 평생에 걸쳐 지속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정체성, identity이라는 말은 실재를 의미하는 라틴어 *essentitas*와 반복을 의미하는 *identidem*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 그러므로 정체성이란 ‘반복된 실재’를 의미하게 된다. 일상의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일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들이라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일상 영성 형성을 위한 노력이 다른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상 영성 형성은 규범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이다. 영성에서 규범이란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것이다. 실천이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Stevens(2001: 302)는 모든 이론에는 암시적으로 행동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행동도 암시적으로 이론을 내포하고 있어서 사역을 하면서 혹은 사회적인 직업에 종사하면서 신학적 성찰을 하는 것이 신학적 삶에서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연역적 접근과 실천을 통해 일상을 다시 말씀에 근거하여 해석하는 귀납적 접근의 상호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호성이 부족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에게 최선의 행동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도덕적으로 나약하고 절제력이 부족하여 이와 반대로 행동하는 아크라시아(*akrasia*)에 빠질 수 있다. 반대로 일상에서 개인의 성장과 자기 계발을 목표에만 집중하여 기독교의 가치와 규범을 개인적 욕망을 위해 사용하며 실천할 수 있다(김보경, 2019). 그러므로 일상 영성은 말씀과 삶, 텍스트와 콘텍스트, 율법과 행위, 도덕적 신념과 자기성장 사이를 연역과 귀납의 방식으로 역동적으로 오갈 때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 Nye와 Hay(1996)가 말한 도덕적 민감성과 신과의 신비적 일치 사이에서 어느 한 곳에 고착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연하게 영적인 일상을 살아낼 수 있다.

셋째, 일상 영성 형성은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가능하다. 기독교적 영성의 함양은 하나님과 나 개인의 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되므로 매우 개인적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인간이 어떤 일상적 행위를 실천하는 동기와 실천하는 장은 대체로 공동체와 관련이 깊다. Bandura(1977)의 사회적 학습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은 타인의 행동 또는 주어진 상황에 대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모방(mimesis)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본 받으라’는 말로 자주 등장한다(고전 4:16; 11:1; 엡 5:1, 빌 3:17). 최근 청소년의 40%가 스마트폰 중독(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가정, 학교, 사회 등 청소년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모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개인의 의지만으로 중독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일상 영성의 형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영성을 일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수월하게 형성될 수 있다.

2. 교회 교육의 특수성

교회 교육은 일반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과는 교육의 목적, 사고 방식, 성찰과 실천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교회 교육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양육과 성화를 지향한다. 과거 학교교육에서 지식 전달식 교육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이 문제해결학습이다. 그러나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능력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교육은 상당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최은순, 2016: 66). 인간은 기계처럼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만으로는 살아가기엔 어려움이 많다. 일상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고민하고 공동체 안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실천적 지식을 학습해야 한다. 실천적 지식이란 관조나 사유의 대상인 절대적이고 보편적 지식과 달리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영혼 및 이성의 작용을 다루고 있다(한수민, 임병노, 2016: 868). 인간을 영, 혼, 육으로 구분한다면, 로봇이 인간의 운동기능을 수행하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수행하게 되면서 육과 혼 영역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는 육과 혼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일 뿐, 육과 혼 그 자체는 아니다. 또한 영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며, 영, 혼, 육이 개념적으로 구분되나 기능적으로는 하나로 작용(functional holism)한다(송인규, 2002). 영, 혼, 육이 함께 작용할 때 인간의 영성이 함양되고 성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적 전체성은 기술로 구현해낼 수 없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에서는 인간의 영, 혼, 육의 전체성을 다루어야 하며, 이것은 일시적인 교육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노력해야 하는 과업으로 생각해야 한다. 교회 교육은 성도를 양육하고 그들의 성화를 돕는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직관과 직관적 사고에 수용적이다. 직관이란 외부로부터 온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 안의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힘이다. 직관은 인간이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지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영역에서는 논리 또는 분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김보경, 2018:

40). 직관의 개념이 모호하기도 하여 교육연구와 교육현장에서 다루기 어려웠지만, 여러 연구에서 제시한 직관의 속성들인 도전, 정서, 비이성, 감각, 찰나 등은 최근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창의성이나 상상력의 속성과 유사하다(김보경, 2018; 박준형, 송진웅, 2017, Bastick, 1982; Bruner, 1960)는 점은 교육에서 직관적 사고에 대해 수용하기 시작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기독교 영성에서는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항상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오슬기, 2021: 7), 일반교육과 달리 교회 교육에서는 직관을 도입하여 성도가 일상의 삶에 대해 통찰하고 창조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직관은 무의식 또는 전의식이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의 직관은 초월심리학적 의미로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메시지인 계시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배시은, 안윤경, 김용태, 2015: 186). 교회 교육에서는 외부 지식을 가르치고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자신 안에 이미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 있음을 알아차리며 그것을 직관을 통해 끌어내어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셋째, 말씀에 근거한 자아성찰과 실천을 강조한다. 교회 교육은 교육의 목적, 대상, 특성에 따라 교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 교육은 성경이라는 하나의 주 교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교육에는 글로 표현된 말씀이 있고, 모든 교육은 그곳에서 나와 확산된 후 다시 그곳으로 수렴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자신을 조율해보는 지적인 자아성찰과 회개를 통해 일상을 말씀에 근거해 재해석하고 다르게 경험하고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신학에 대한 실천적 접근으로 19세기 슐라이어마허에 의해 교회 현장과 실천(praxis)의 중요성이 잠시 인식되었으나 이내 관심이 사라졌고, 21세기에 들어서야 삶의 현장에 무관심했던 보수적 접근에 대한 반성으로 실천지향적 신학교육과정과 신학교육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김순성, 2016: 10). 그러나 여전히 교회의 존재 양식이 성도의 일상과 분리되어 있고, 그것을 극복할만한 대안적 개념의 형성이나 운동이 미약하다. 그러다 보니 교회 교육 실천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경교육의 추상성과 피상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영성에 기초한 도덕적 인격형성과 성화를 돕기 어려운 실정이다(김보경, 2019: 171).

이외에도 교회 교육에 참여하는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다양하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기의 이질성이 높으며, 자발적 참여가 대부분이나 객관적 평가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참여도나 이수율도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교육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교회 교육에서 세 가지 특징은 일반 교육과 비교하여 가질 수 있는 상당한 강점으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III. 일상 영성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리

일상 영성 형성의 특성과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원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형성적 교육관 공유

교회 교육의 목적은 성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 즉, 성도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교육은 이벤트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 교육은 형성적(formative)인 것으로, 지속적 자기 성화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인 교육은 일회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하여 완성하지만, 일상 영성 함양과 성화의 과정은 완성이라는 것이 없다. 어느 때라도 잘못된 형성이 생겼다면 교육에 다시 참여하여 잘못 습득된 일상의 습관을 버리도록 대항 형성적(counterformative) 실천을 연습할 수 있는(Smith, 2016) 교육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영성 회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영성의 회복은 인간의 파편화, 내면의 목마름,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등 교육의 많은 오류를 극복할 수 있게 한다(김정신, 2002: 54; 유재봉, 2013: 98).

실천적 지식은 이론적 지식과 달리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교정의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또한 일상의 무형식적 학습의 형태를 띠므로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암묵적 방식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문성숙, 2012: 35). 그러므로 일상 영성 함양에 관한 교육은 이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되며, 프로그램이 실천공동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성도 스스로 일상의 영성을 함양하는 것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에서 타락한 모습이 인식될 때, 잘못 형성된 습관들이 발견될 때, 영성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언제든지 참여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천공동체로 인식해야 한다.

2. 참여자의 텍스트 음독

일반적인 교육에서는 교육하는 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거나, 유명세나 호소력이 있어 매력적인 강사를 초빙한다. 강의하는 구술 언어는 살아 있는 유기체의 내부에서 나오는 구두 발성의 역동적인 힘이 중요하다(전숙경, 2017). 메시지는 메신저에 따라 파급되는 힘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보다 메신저라는 말이 있다. 외부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는 구술 언어 중심의 강의는 강의를 종료됨과 메신저의 힘도 종료되기 때문에 효과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러나 구술 언어와 달리 문자와 글은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교육이 종료되어도 인쇄된 글은 남아있다. 최근에는 매체를 활용해 듣는 성경도 상당히 보편화 되었지만, 인쇄된 성경의 글자를 눈으로 보고 소리 내어 읽는 행위와는 차이가 있다. 특히 성경이나 도덕적 규범 등은 인쇄된 글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소리를 내어 읽고 다시 그 소리를 귀로 듣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용의 지속성과 화자의 실천력에 크게 도움이 된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읽는 행위를 reading이 아닌 listening이라고

여긴다(Kent, 2010). 성경의 텍스트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한 글자, 한 단어를 깊이 읽게 읽으며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철회하는 조율된 경청(attuned listening)이다(Holzer & Kent, 2014).

일상 영성 형성의 규범은 권위가 있고 검증이 된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 교회 교육의 주교재인 성경과 일상 영성에 대한 세계관 관련 서적의 텍스트, 일상에 필요한 교양서적, 시사적인 이슈들을 텍스트로 제공하고 이것을 참여자들의 목소리도 강독, 낭독, 운독을 포함시켜 청각적 자극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을 공동체 앞에서 목소리를 내어 읽는 행위는 지식의 습득을 넘어 이를 삶에 실천하겠다는 일종의 공동체적 선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롤 모델 또는 사례의 활용

일상 영성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 실현되므로 눈으로 보여 질 수 있고 구체적인 언어로 설명될 수 있다. 때문에 일상 영성을 함양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롤 모델을 보여주고 모방하게 하는 것이다. 성도는 롤 모델의 독특한 경험을 전해 듣고 그것을 성경이라는 보편적 진리에 근거하여 이해해보는 경험을 통해 도전을 받는다. 일상 영성은 지속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외부보다는 기급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한 롤 모델과 그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상 영성의 육화(肉化)적 속성은 곧 그 일상을 행하는 사람, 그 인격으로 타인에게 경험된다. 그러므로 롤 모델의 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이웃 중 한 발짝 앞서 실천한 사례를 찾는 것이 좋다. 외부에서 초빙된 유명 강사의 사례는 순간적 감동과 도전은 얻을 수 있으나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시각적 자극이나 신호를 얻거나 모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기도, 찬양, 묵상의 재배열

기독교의 영성은 인간 내부의 성령이 지금, 여기에 주는 생생한 계시를 받는 것을 포함한다. 글을 읽거나 타인의 언어적 자극을 수용할 때는 주로 외부의 정보를 수용하면서 논리적이고 의식적 사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이 무의식적 선택, 직관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에서 일상 영성 함양은 눈을 감고 잠재의식으로부터 무엇인가가 꺼내어지는(intuition) 경험들이 삶의 곳곳에 배치될 필요가 있다. 기도, 찬양, 묵상은 안의 것을 밖으로 꺼내는 pull형 교육이며, 설교나 강연 듣기, 글 읽기는 push형 교육이다(Jones, 2019).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회 교육에서 기도, 찬양, 묵상은 프로그램의 도입부와 마지막 정리 단계에 배치되어 마치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또는 마무리를 위한 신호(signal) 또는 의식(ritual)으로 여겨지는 현상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것들은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교회 교육만의 독특한 구성요소이자 힘이다.

자신과 하나님, 이웃, 사회와의 관계에서 해내야 할 일들에 대한 순간적 직관과 통찰이 일어나는

그 시점에서 우리의 영성이 한 단계 성숙해진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을 프로그램 시작과 끝에만 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간에 적절한 곳에 배치하여 계시와 음성을 직관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개인적 성찰과 공동체적 실천

일상에서 이루어진 삶의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습관의 형태를 띤다. 믿음과 경건의 삶은 개별성을 띠지만, 이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목표를 공유하고 같이 실천하고 성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교육에서 공동체적 실천을 잘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전통 종교인 샤머니즘의 개인 기복 신앙 위에 기독교가 전파된 까닭이다. 이에 대한 각성으로 기독교의 복과 사적 욕망의 실현을 위한 기복 신앙적 기독교가 다름을 알리고 교육하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사적 종교,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요한 잘로모 제믈러(Johann Salomo Semler)의 사적종교의 개념에서는 기독교가 사적인 종교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지만,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이성덕, 2022).

최근 기독교세계관의 재구성 운동으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가 칼빈주의를 재해석하여 제시한 ‘세계-형성적 기독교(World-formative Christianity)’를 들 수 있다. 그는 성도에게는 자신이 속한 세계의 사회구조를 서로 협력하여 바꿀 책임이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신앙에 덧붙여진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영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상원, 2017). 그러므로 일상 영성을 다루는 교회 교육에서는 개인의 내면세계의 질서에 대한 성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실천면에서는 자신이 속한 가정, 직장, 교회, 사회 공동체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동안 교회 교육에서 주어진 과제로는 개인기도, 중보기도, 성경읽기, 말씀 암송, 성경 필사, 영성 일기 등 개인적 경건생활에 필요한 과업으로 실천 과제라기보다는 학습 과제의 성격이 크다. 월터스토프에 의하면 이러한 개인적 경건에서 자연스럽게 가족, 이웃, 사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예컨대, 어려움을 당한 회사 동료에게 위로와 격려하기, 가족이 매일 밤 잠자기 1시간 전부터 미디어 금식하기, 교회 공동체가 매일 저녁 탄소중립 식단 실천하기, 지역에서 생계가 어려운 예술가의 의 전시회 함께 방문하기 등을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실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학습이라기보다는 실천적 과제의 성격이 크다.

이러한 실천은 개인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사회 안에서 실행되는데, 실천 후에는 반드시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에 따른 것인지, 도덕적 또는 사회적 규범에 옳은지에 대한 개인의 귀납적 성찰과 나눔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실천적 지식은 개인적·공동체적 삶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윤리적 규범과 원리가 공유되는 대화공동체 속에서 형성해야 하기(최명선

1998: 502) 때문이다

IV. 일상 영성 교회 교육 프로그램 사례

1. 기독교부모의 일상습관 형성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자녀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는 반면, 본 프로그램은 부모의 행동과 습관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인으로서 또한 부모로서 가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일상적 행위 즉, 언어, 가정예배, 미디어사용, 공부, 건강관리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깨닫고, 각 행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참여자들이 개별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 실천하게 한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표 1>과 같이 5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각 주제를 실천하는 행위자로서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모든 주제에는 담당 목회자가 10~15분 분량의 짧은 설교를 제공하여 각 습관의 성경적 의미를 성경말씀을 통해 규명하도록 하였다. 그 외 모든 순서에는 설교나 강의가 없으며 참여자들이 글을 읽고, 나눔을 하고, 사례를 공유하고, 성찰하고, 결단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읽을 자료는 각 주제별로 필요한 텍스트를 발췌하여 구성하였는데 성경 말씀 → 기독교 세계관 관련 서적 → 교양서적/ 칼럼 등의 연역적 순서로 큐레이션을 하여 낭독 또는 운동하도록 하였다. 읽고 난 후에는 질문을 제시하여 글(text)과 자신이 처한 맥락(context)을 연결시켜 생각하고 그 결과를 나눔을 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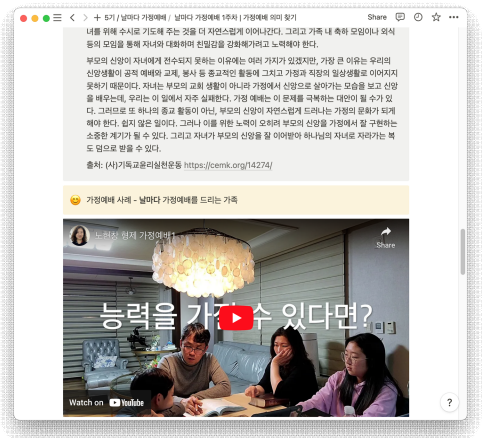
각 습관을 실천하는 과제는 자신의 일상을 고려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스스로 도출하도록 하였고, 일상에서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체성을 기록한 시각적 상징물을 제공하여 해당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5기까지 운영되었으며, 매 기수마다 참여자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정 주제를 강조하거나 약화시키고, 운영도 참여자들의 특징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들이 모두 부부인 경우에는 가정의 일상예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 주처에 가정예배를 배치하고 언어습관, 미디어 습관, 건강습관, 공부습관 등의 주제는 가정예배와 연계하여 습관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표 1〉 기독교부모의 일상습관 형성 프로그램 내용 구성

주제	정체성	주요 텍스트	사례
오늘부터 가정예배	가정의 제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린도전서 3:16-17, 요 4:21-24 · 오늘부터 가정예배(도널드 휘트니) · 삶을 변화시키는 가정예배를 위한 5가지 습관(정병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대가 드리는 가정예배 장로님 가정
평화의 언어습관	화평케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엡 4:29, 31, 32 · 오늘이라는 예배(티시 해리슨 워런) · 비폭력 대화(마셜 B. 로젠버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딸과 어머니 대화
다스림의 미디어 습관	다스리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 4:7 · 영성의 깊은 샘(제럴드 잇처) · 미디어는 교육을 어떻게 바꾸었나(전숙경) · 정리하는 뇌(대니얼 J. 리베틴) · 디지털 미니멀리즘(칼 뉴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중독 자녀 사례
창조질서를 발견하는 공부습관	창조질서의 발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 1: 26-28, 잠 1:7, 히 4:12 ·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은(양승훈) · 네 질문이 뭐니?(하브루타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대학생 사례
쓰시기 합당하게 건강습관	단련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모데후서 2:20-21 · 내 몸 사용안내서(게리 토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식단으로 체중 감량과 영적 민감성을 회복한 권사 사례

모든 주제에 교회 구성원 중에서 롤 모델과 사례(실패 사례 포함)를 발굴하여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가정예배 주제의 롤 모델로는 3대가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장로님을 초청하여 사례 발표를 들었다. 그 외에도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 주말 부부의 가정예배를 사례를 영상 또는 글로 공유하였다. 한 주간 실천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간단한 글을 작성하도록 워크북에 양식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실천의 과정을 참여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작성한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하도록 하고 댓글을 통해 서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워크북을 인쇄물로 제공하다가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이 용이한 디지털 워크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노트 플랫폼(Notion 사용)으로 작성하여 [그림 1]과 같이 제공하였다. 워크북에서 제공되는 각종 텍스트 자료나 사례들이 그래픽이나 영상으로 제공되고, 매년 더 적절한 내용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림 1] 기독교부모의 일상습관 형성 교육 워크북

2. 기독교청년 일상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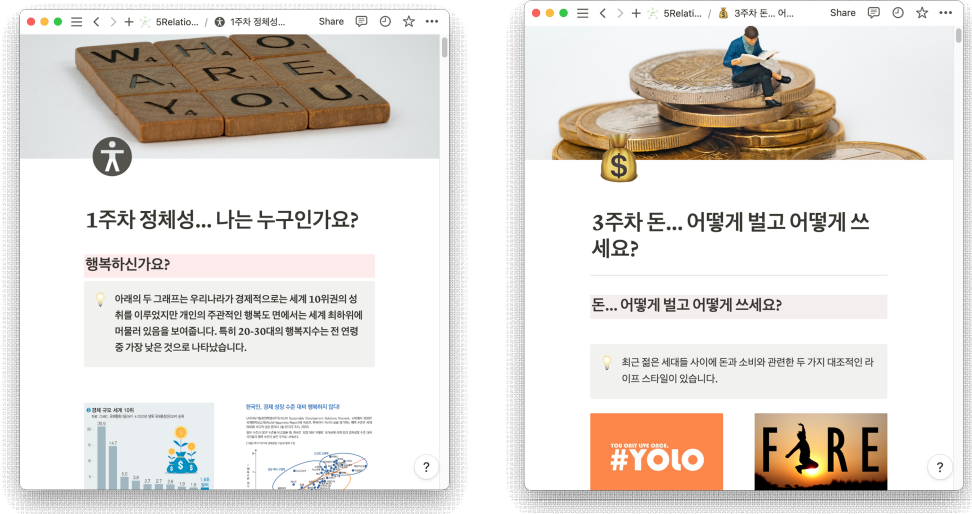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MZ세대 기독교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관계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청년으로서 독립을 했거나 독립을 준비를 하면서 보편적으로 거치고 있는 과업들인 직장문제, 재정문제, 결혼문제, 북한문제를 세속적 세계관이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각 영역에서 자신의 참여자들이 개별적인 실천 방안을 찾아 실천하게 한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표 2>와 같이 5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모든 주제에서 강의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상당 분량의 읽기 자료가 제공되는데, 각 주제와 관련된 시사적인 통계자료 → 교양서적 → 기독교 세계관 서적 → 성경말씀의 귀납적 방식으로 큐레이션 하여 낭독 또는 윤독하도록 하였다. 읽고 난 후에는 질문을 제시하여 글(text)과 자신이 처한 맥락(context)을 연결시켜 생각하고 그 결과를 나눔을 하도록 하였다. 각 영역에서 마주친 일상의 문제들이 실제로 세속적 세계관과 가치관의 학습에 의한 것임을 깨달도록 도와 스스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발견하고 성경적 해결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결론과 실천을 돕기 위해서 실천과제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후속 시간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표 2〉 기독교청년 일상문제 해결 프로그램 내용 구성

주제	주요 텍스트	사례	실천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경제규모와 행복지수 통계(IMF, UN) · 답이 되는 기독교(팀 켈러) · 마 16:16-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미쉬 공동체 · 오야마 레이저 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된 단어, 성경 구절, 이미지 찾기
일과 직장, 밥벌이일 뿐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전후 직업 가치관의 변화 관련 통계(한국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청년의 시간: 부르심을 살아가는 오늘(폴 손) · 소명(오스 기니스) 	(· 녹즙기 판매왕에서 치과의사가 된 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1차적 소명, 2차적 소명, 공동체적 소명 진술서 작성하기 · 직장에서 나와 안 맞는 사람에게 대처하기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LO족과 FIRE 족의 공통점 · 성경적 재물관(KOCW 한동대자료) · 돈의 속성(김승호) · 유일한 평전(조성기) · 마 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천의 주식 투자 · 유일한 박사의 유언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재무(예산) 시스템 구축 · 지혜로운 부의 칭지기가 되기 위해 1가지 실천하기
결혼, 뭐가 맞는 거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건수 감소, 감소 이유 통계(통계청) · 결혼을 말하다(팀 켈러) · 고전 7:2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예비학교 담당 사역자 (· 성경적 독신 생활을 하는 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 또는 독신의 관점 세우기
북한,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의 갈등지수 통계(OECD) · 통일은 치유다(전우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원으로 떠나는 평화기행

본 프로그램은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현재 진행 중이다. 각 주제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공동체 내에서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표 2>에서 ()로 제시한 사례는 발굴하였지만 1기에 포함시키질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적절하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찾아서 활용할 예정이다. MZ 세대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워크북을 인쇄물 뿐만 아니라 QR코드로 접속할 수 있는 노트 플랫폼(Notion 사용)으로 작성하여 [그림 2]와 같이 제공하였다. 워크북에서 각종 데이터나 사례들이 그래픽이나 영상으로 제공되고, 매번 새로운 통계자료와 더 적절한 사례로 보완하기 위해서 디지털 워크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림 2] 기독교청년 일상 문제 해결 교육 워크북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의 반복적 일상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일상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는지를 다루는 일상 영성 함양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일상 영성의 특징과 교회 교육의 특수성,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방안, 이를 적용하여 개발한 교회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았다.

일상 영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방안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 교육은 성화의 장이라는 형성적 교육관의 공유는 교육을 준비하는 스텝들과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강사 초빙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 내용, 자료, 운영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토론하고 고민하였고, 참여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자들에게는 실천을 위한 교육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형성적 교육관에 대해서 좀 더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자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참여자의 텍스트 음독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참여자들이 교회에서 성경 말씀 이외에 자신의 일상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글을 읽는 경험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았다. 읽을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읽을 자료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고 읽고 오도록 안내하지만, 교육 중에 윤독이나 낭독으로 같이 읽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해 매우 신선하게 느끼며, 주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하는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나눔에서 소극적인 참여자들에게 읽는 과업을 부여하는 전략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일상에 대한 읽기 또는 말하기를 하도록 설계한 것은 참여도를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

셋째, 롤 모델과 사례 제공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가급적 교회 안의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사례를 발굴하였고, 없는 경우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오랜 시간 검증된 롤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상의 실천을 영상이나 슬라이드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롤 모델을 모방하고 실천을 독려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롤 모델과 사례 발표를 들은 후 서로 인사를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기도, 찬양, 묵상 등을 프로그램 중간에 배워해보고자 하였으나 적용하지 못하였다. 각 주제별로 시작과 마무리에 배치하는 기존 방식을 따랐다. 교회 교육에서 강의를 없애고 글을 읽는 등의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면서 프로그램의 계열화까지 바꾸는 것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부담되어 다음에 적용해 볼 것으로 남겨두었다. 다만 실천을 강조하는 교육이므로 마무리하는 기도의 형식을 다르게 운영하였다. 기독교부의 일상 습관 형성 프로그램에서는 각 주제별로 실천 과제를 스스로 정한 후에 기도를 진행하여 각자 한 주간 그 실천을 실행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기독교 청년 일상 문제 프로그램의 경우 개인별 실천이 아니라 동일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였기에 해당 주제에 대한 내용과 실천적 결단을 담은 기도문을 만들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다섯째, 개인적 성찰과 공동체적 실천은 각 주제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다. 가정예배나 평화기행 등의 주제는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도록 하였고, 그 외의 주제는 개인적 실천과 공동체의 실천이 유연하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일상 영성의 경우 개인과 공동체가 같은 소명을 가진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 기독교인은 공동체적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 위에 개인의 사명을 얹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이를 디지털 회화적으로 비유하여 공동체라는 배경 레이어에 개인이라는 투명한 레이어를 얹어 개인이 소명을 따라 일상을 살아갈 때 공동체의 소명도 보여지고 드러나지는 것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성도의 일상 영성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들을 교회 교육의 현장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열려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평신도 중에서 신학적 소견이 있는 이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교회와 일상의 중간에서 양자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 영성에 관한 교육에서는 이러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평신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각 신학 대학에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교육하는 코스들이 다양하게 제공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3).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 김난예(2015). 질문생성 전략과 하브루타 신앙공동체 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3, 169-198.
- 김보경(2018). 직관적 사고의 교육적 의의와 교수설계에의 시사점. 교육공학연구, 34(2), 383-414.
- 김보경(2019). 하브루타를 적용한 실천적 지식 학습 모형 개발. 신앙과 학문, 24(3), 163-197.
- 김순성(2016). 실천지향적 신학교육을 위한 방법론 및 실천적 제언. 복음과 실천신학, 38, 9-37.
- 김정신(2002). 영성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5(1), 53-78.
- 목회데이터연구소(2020. 4. 10). Numbers, 42.
- 문성숙(2012). 성인학습에서 무형식 기제로서의 실천공동체성 분석: 문화관광해설사 연구. 인하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형, 송진웅 (2017).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 관적 사고의 특징-발현의 맥락 및 논리적 사고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7(3), 523-537.
- 배시은, 안윤경, 김용태(2015). 직관의 이해에 대한 확장적 연구: 기독교 상담적 접근으로. 복음과 상담, 23(2), 163-194.
- 송인규(2002). 이분설과 영육관계(2). 신학정론, 20(1), 90-114.
- 오슬기(2021). 일상 영성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재봉(2013). 교육에서의 영성회복: 학교에서의 영성교육을 위한 시론. 교육철학연구, 35(1), 97-117.
- 유해룡(2011). 영성의 발자취.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이상원(2017). 개혁주의 신학에서 본 복음전도와 사회운동. 신학지남, 84(2), 9-35
- 이성덕(2022). 요한 잘로모 제믈러(Johann Salomo Semler)의 '사적종교'(Privatreigion)의 개념 과 그 역사적 의미. 한국교회사학회지, 62, 69-96.
- 전숙경(2017). 미디어는 교육을 어떻게 바꾸었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명선(1998). 지식과 교과. 교육과정연구, 16(1), 493-516.
- 한수민, 임병노(2016). 실천적 지식 구성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 개발. 교육공학연구, 32(4), 867-896.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https://doi-](https://doi.org/10.1037/0033-2909.84.2.191)

i.org/10.1037/0033-295X.84.2.191

- Bastick, T. (1982). *Intuition: How we think and act*. New York: Guilford Press.
- Bruner, J. (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lzer, E., & Kent, O. (2014). *A Philosophy of Havruta—Understanding and teaching the art of text study in pairs*. Boston, MA: Academic Studies Press.
- Kent, O. (2010). A Theory of Havruta Learning. *Journal of Jewish Education*, 76(3), 215–245.
- Davis, P. (2022). *전념: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에 관하여*. 신유희(역). 서울: 상상스퀘어. (원전은 2021에 출판)
- Jones, N. S. (2021). *How People Learn: 러닝 이노베이션*. 오승민(역). 플랜비디자인. (원전은 *How People Learn: : Designing Education and Training that Works to Improve Performance*, 2019에 출판)
- Smith, K. A. (2018). *습관이 영성이다*. 박세혁(역). 비아토르 (원전은 *You Are What You Love: The Spiritual Power of Habit*, 2016에 출판)
- Stevens, P. (1996). *현대인을 위한 생활영성*. 박영민(역). 서울: IVP. (원전은 *Disciplines of the Hungry Heart: Christian Living Seven Days a Week*, 1993에 출판)
- Stevens, P. (2001).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역). 서울: IVP. (원전은 *Abolition of the Laity*, 2000에 출판) 일상 영성 형성의 특징